

2018년 7월 2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실적 발표에 주목하며 상승 전환 성공 팩트셋, S&P500 2 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20.8% 증가 추정

실적 개선 기대감 유입

미 증시는 무역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전환에 성공.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형 은행주, 일부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반면, 산업재와 필수소비재 섹터는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다우지수는 하락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 한편, 마이크로(-1.33%)이 장 초반 5% 가까이 급락 했으나, 향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하락폭을 크게 축소한 점도 특징(다우 -0.06%, 나스닥 +0.28%, S&P500 +0.18%, 러셀 2000 +0.09%)

이번 주 S&P500 기업중 35%가 실적을 발표. 이에 따라 시장의 화두인 무역분쟁 등 증시 주변 이슈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특히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무역분쟁이 향후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부에 주목. 골드만삭스는 무역분쟁이 격화돼 중국산 수입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2019년 S&P500 EPS 전망치를 3%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 하는 등 투자은행들은 무역분쟁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2018년 EPS 전망을 주당 161.24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177.20 달러로 예상하는 등 무역분쟁 이슈가 격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한편,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주까지 S&P500 기업 중 17%가 실적을 발표. 이 가운데 87%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 이에 힘입어 2 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추정. 이는 지난 2010년 3분기(34.1%) 이후 최고치.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저효과로 인해 에너지(yoy +144.2%)와 소재(yoy +48.5%)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 이 외에 통신(+26.0%), IT(+25.6%), 금융(+20.4%) 등이 전년 대비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발표. S&P500 3 분기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법인세 조정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지속되는 양상.

S&P500 분기별 영업이익 추정치

섹터	2 분기(yoy)	3 분기(yoy)
에너지	144.2%	99.7%
통신	26.0%	32.4%
IT	25.6%	15.7%
S&P500	20.8%	21.5%
금융	20.4%	38.8%
소재	18.5%	32.3%
산업재	14.6%	17.8%
경기소비재	13.3%	17.7%
헬스케어	10.5%	9.7%
필수소비재	8.3%	8.4%
부동산	5.8%	6.2%
유틸리티	3.0%	8.4%

자료: 팩트셋,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코스피	2,269.31	-0.87	홍콩恒生	28,256.12	+0.11
코스DAQ	756.96	-4.38	영국	7,655.79	-0.30
DOW	25,044.29	-0.06	독일	12,548.57	-0.10
NASDAQ	7,841.87	+0.28	프랑스	5,378.25	-0.37
S&P 500	2,806.98	+0.18	스페인	9,726.10	+0.01
상하이종합	2,859.54	+1.07	그리스	751.50	-0.38
일본	22,396.99	-1.33	이탈리아	21,605.21	-0.8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알파벳, 시간외 4% 상승 중

장난감 제조업체 하스브로(+12.89%)는 매출 등이 전년 대비 부진했으나, 시정 전망치를 상회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특히 Toys R Us의 청산을 비롯해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19년에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상승 요인 이었다. 마텔(+3.88%)도 동반상승 했다. JP모건(+1.86%), BOA(+2.06%), 웰스파고(+2.82%) 등 금융주는 장기금리 상승에 힘입어 이익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자 상승 했다. 마이크론(-1.33%)은 아시아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급락 여파로 5% 가까이 하락 출발 했으나,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 했다.

산업재 섹터인 일루노이틀스(-7.22%)는 예상과 부합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및 비용 증가를 이유로 향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 했다. 3M(-1.54%)도 동반 하락 했다. 원유서비스업종인 할리버튼(-8.10%)은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 했다. 아마존(-0.65%)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독점을 언급하자 하락했다. 한편, 알파벳(+1.10%)은 시간 외에 양호한 실적 발표한 데 힘입어 시간외로 4% 상승 중이다. 특히 주목했던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47%	대형 가치주 ETF	+0.20%
에너지섹터 ETF	-2.28%	중형 가치주 ETF	+0.09%
소매업체 ETF	-0.10%	소형 가치주 ETF	+0.14%
금융섹터 ETF	+1.38%	배당주 ETF	-0.14%
기술섹터 ETF	+0.51%	변동성 ETF	-0.48%
소셜 미디어업체 ETF	+0.10%	대형 성장주 ETF	+0.01%
인터넷업체 ETF	+0.33%	중형 성장주 ETF	+0.02%
리츠업체 ETF	-0.28%	소형 성장주 ETF	+0.12%
주택건설업체 ETF	-1.10%	신흥국 고배당 ETF	-0.27%
바이오섹터 ETF	-0.06%	신흥국 저변동성 ETF	-0.47%
헬스케어 ETF	+0.21%	하이일드 ETF	0.00%
곡물 ETF	+0.23%	물가연동채 ETF	-0.47%
반도체 ETF	-0.07%	Long/short ETF	-0.3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1.23	-0.39%	-1.11%	-0.83%
소재	363.41	-0.50%	-0.20%	-0.87%
산업재	621.54	-0.62%	+0.70%	+1.84%
경기소비재	891.51	-0.10%	-0.74%	+0.53%
필수소비재	539.29	-0.53%	+0.06%	+1.68%
헬스케어	1,005.68	+0.24%	+0.10%	+2.27%
금융	463.64	+1.32%	+1.74%	+3.07%
IT	1,283.60	+0.52%	+0.97%	+3.02%
통신	146.16	-0.03%	-2.33%	-0.16%
유틸리티	263.37	-0.64%	-1.03%	+2.28%
부동산	200.08	-0.23%	-1.20%	+0.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알파벳 실적 발표에 기대 반등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2.04% MSCI 신흥 지수도 0.6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424 계약)에도 불구하고 0.05pt 상승한 295.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3.8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 증시는 거래 대금이 급감한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그마한 이슈에도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등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이 5,020 억위안이라는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며 하반기 경기 부양 기대감을 높였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주변 여건은 나쁘지 않다. 더불어 전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7 월 20 일까지의 수출 또한 전년 대비 9.3% 증가하는 등 국내 이슈 또한 나쁘지 않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심리가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투자심리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고,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는 경향이 높아진다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 전일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한국의 수출 증가 소식은 투자심리 개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미 증시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이 시간 외로 4% 넘게 상승 중이다. 특히 데이터서버 비용 급증을 비롯한 국내 반도체 업종에 우호적인 내용을 발표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국내 증시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24~25 일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16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무역분쟁 이슈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견된 내용이며 중국 정부가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경기 개선 지속

6 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건수는 전월 대비 0.6% 감소한 538 만 건으로 발표되며 시장 전망치인 545 만 건도 하회 했다. NAR 은 공급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발표했다.

6 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는 지난달(0.26) 보다 개선된 0.42 로 발표되었다. 3 개월 평균 또한 지난달(0.10) 보다 개선된 0.16 으로 발표되며 미국 발 경기 개선 기대감을 높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 유가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로하니 대통령에게 “절대로 미국을 위협하지 마라” 라고 트위터에 남긴 가운데 중동발 우려감이 높아지자 장중 상승 했다. 그러나 24~25 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16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뒤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며 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하락 전환 했다.

달러지수는 2 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가 마이너스(-)0.6 으로 발표되는 등 여전히 심리지표 둔화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45%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이란과 미국의 분쟁 격화 여파로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 분기 GDP 성장률은 4.8%에 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더불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BOJ 가 국채매입과 관련된 부작용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10년물 0.32%→0.82%) 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는 달러 강세 및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한 가운데 하락 했다. 여타 비철 금속 또한 동반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1%, 철근도 0.38%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7.89	-0.54	+1.22	Dollar Index	94.627	+0.16	+0.12
브렌트유	73.06	-0.01	+1.70	EUR/USD	1.1695	-0.25	-0.14
금	1,234.40	-0.48	-1.27	USD/JPY	111.39	-0.02	-0.80
은	15.425	-0.80	-2.45	GBP/USD	1.3103	-0.25	-1.00
알루미늄	2,069.00	+1.97	+0.68	USD/CHF	0.9927	+0.04	-0.41
전기동	6,130.00	-0.28	-1.00	AUD/USD	0.7383	-0.43	-0.49
아연	2,555.00	-0.78	+3.27	USD/CAD	1.3167	+0.17	+0.24
옥수수	371.25	+0.61	+4.50	USD/BRL	3.7818	+0.32	-2.04
밀	513.75	-0.44	+5.17	USD/CNH	6.81	+0.43	+1.59
대두	862.75	-0.23	+2.01	USD/KRW	1131.40	-0.20	+0.19
커피	111.65	+0.90	+1.22	USD/KRW NDF 1M	1133.83	+0.56	+0.5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960	+6.66	+10.15	스페인	1.377	+6.70	+10.10
한국	2.540	+1.80	-0.30	포르투갈	1.766	-0.70	-0.30
일본	0.086	+5.10	+4.60	그리스	3.830	-1.70	-0.80
독일	0.406	+3.60	+4.30	이탈리아	2.636	+5.10	+6.20